



# 좋은 친구

FRIENDS

---

2024. 7.  
Vol.017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와 뜻있는 분들이 심은 소중한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8개국 29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표지 이야기



세네갈 칠레부바카르마을 공동텃밭은 2021년 안암 제일공동체에서 후원한 우물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황량한 땅에 녹색의 신선한 그림을 선사해준 깨끗한 물의 기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네갈 BBSP(소규모비즈니스창업과정) 프로그램으로 창업에 성공한 수료생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마을 안에서 보증서처럼 통한다는 BBSP 수료증을 들고 함박 웃는 모습에 저희 마음까지 환해집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17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발행정보** 제17호  
**발행일** 2024년 7월 31일  
**발행인** 주경훈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전화** 02-483-5007  
**E-MAIL** friends@hifriends.or.kr  
**Facebook** hifriends153  
**Instagram** friends.ngo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이사장** 주경훈(오륜교회 담임목사)  
**이사** 고일국(오륜교회 목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박명례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옥유수((주)두리푸드시스템 대표이사)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최병룡(밝은누리안과 원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두원 고훈별 권경호 김민주 김가람 김경리 김기열 김누리 김다솔 김다운 김미애 김민선 김병욱 김봉현 김상준 김소영 김슬기 김영진 김옥인 김은의 김일권 김정신 김주향 김지해 김지혜 김진영 김창현 김현용 김현주 김형진 남미영 남선진 남지수 남택수 명효진 문현욱 문혜영 박수훈 박순자 박식 박영자 박정인 (최시은, 최시원) 박화용 배소영 백선희 백숙현 백승민 성우진 송병준 송정애 신선재 신유라 심주연 아호서 안중선 양치영 여성일 오미선 오정은 유성자 유지혜 유혜진 유혜형 윤경숙 윤보경 윤영희 윤희경 이경숙 이귀은 이례 이미남 이미재 이미진 이서규 이선아 이예진 이은혜 이재은 이정란 이종주 이주호 이지은 이지현 이진경 이진화 이하은 이한나 이현정 임정현 임희숙 장단비 장숙 장은영 장현영 전명애 전익현 정상욱 정서영 정지우 정태문 조연희 조은희 주경현 진동현 최민 최윤창 최은혜 최진 최진영 최태림 최하늘 최하정 한상희 한선희 한지혜 홍병선 황선경 황지혜 황진영

**단체** 롯데리아 일산후곡점 몽실스튜디오 서울척탑병원 시빅스(주) 앙블테 영훈초등학교 올리브디자인목공방 원플러스코리아 일동제약(주) (주)에스알팜 (주)울투딜리셔스 (주)준성약품 (주)케이앤케이트레이딩 (주)랜스 (주)휴브릿지 칼로스 플레이팩토 자양수학교습소

“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CONTENTS

- 04 인사말  
주경훈 (사)프렌즈 이사장
- 05 해외사업 '하나'  
변화와 성장의 기쁨이 있는  
이곳은 칠레부바카르입니다.
- 10 해외사업 '둘'  
라오스에 울려 퍼진  
'가나다'와 '도레미'
- 13 후원캠페인  
콘체르타레의 절정,  
2024 프렌즈데이
- 17 국내사업 '하나'  
국내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에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요
- 19 후원자스토리  
빵빵런과 함께 맛있는 나눔을!  
- (주)1986프로덕션
- 22 프렌즈 News  
2024 프렌즈 상반기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렌즈의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주경훈 이사장입니다. 먼저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들, 프렌즈'에서 함께 섬기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프렌즈 이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프렌즈가 설립된 지 벌써 18년이 되었더군요. 18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이와 청소년의 때를 지나 청년의 시기를 맞게 된 것인데 그만큼 많은 도전과 변화, 성장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프렌즈에 그와 같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코이카의 후원을 받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세네갈에서 지역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조직 역량을 진단하고 컨설팅받는 과정에 많은 전문가가 프렌즈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후원자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를 신뢰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그 마음에 부합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프렌즈에서 처음으로 라오스에 두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제 그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줄 멋지고 실력 있는 단원을 보낼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해외 곳곳에 더 많은 봉사단원이 파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 소식지가 전달될 무렵에는 프렌즈 봉사단의 활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올해도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기꺼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단원들의 한결같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의 반을 넘어선 지금, 프렌즈는 누구의 친구이자 이웃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이자 이웃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가장 소외된 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프렌즈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주경훈**



**변화와 성장의**  
**기쁨이 있는 이곳은**  
**칠레부바카르입니다.**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프렌즈와 현지 파트너기관인 AVEC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세네갈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주 방문 목적은 코이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조사였지만, 기존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5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어지는 강행군이었지만, 조사팀을 환대해 준 주민들 덕분에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문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고 계신 AVEC 가족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 여정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알리 리와 체르노의 아버지

**알리 리의 가족과 함께**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육로로 10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늦은 오후, 제일 먼저 가장 만나고 싶었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바로 2021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알리 리'의 가족입니다. 알리 리는 결연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그즈음 AVEC센터 도서관 출입증을 받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주검과 함께 발견된 도서관 출입증과 슬픔에 잠긴 유족을 보면서 조금만 더 일찍 후원 행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워하며 실의에 빠졌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아빠의 눈과 손발이 되어 주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생계를 이을 방법을 모색하다가 오토바이 1대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에서 오토바이 대여업은 가족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공동체성이 남아 있는 지역 특성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 1대를 후원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 중 일부는 꾸준히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3년이 지난 후,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과 친척들, 형 대신 후원받게 된 동생 체르노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안타까운 마음, 더 빨리 돌지 못한 미안함, 보고 싶었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도 그때를 회상하며 잊지 않고 찾아준 고마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아이는 떠났지만, 아이



가 남긴 선물은 '가족의 자립'이라는 더 큰 선물이 되어 가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후원금으로 마련한 오토바이는 1대였지만, 성실하게 일한 결과 아버지의 오토바이는 1대에서 3대까지 늘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네갈 사업장은 그사이 후원을 기다리는 또 다른 '알리 리'를 위해 결연을 확대했고, 현재는 113명의 아동이 후원받는 사업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섭게 해서 미안해**

프렌즈의 후원으로 킷스쿨(태블릿PC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아동의 읽기, 쓰기, 수학 등 기초학습을 돕는 디지털 교육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칠레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킷스쿨 화면과 함께 화면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른 교실로 가서 더 어린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께로 달려가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었나 어리둥절하던 찰나 순식간에 사방에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손님들에게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큰 아이들은 간신히 울음을 참았는데 작은 아이들은 무서움을 숨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 울음이 전체에 퍼지기 전, 얼른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은 킷스쿨로 인한 즐거운 변화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아이들과 교사를 위한 책걸상과 보관함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이 모두 교실에 나와 있으니 그러지 않아도 좁은 교실이 더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유치원을 나섰습니다.

유치원을 나올 때 '하마탄(모래폭풍)'이 찾아왔습니다. 하마탄이 한번 시작되면 1주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니 나뭇가지들이 마를 대로 마르다가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잔가지들도 많지만, 길이가 10cm쯤 되는, 웬만한 신발은 뚫릴법한 위험한 가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거나 얇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가시에



찢려 다치고 감염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할 곳, 쉴 곳이 없는 뜨거운 길, 가시가 많고 모래바람이 부는 길을 한없이 걸어 다녀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BBSP가 달아준 날개**

세네갈 사업장은 2021년부터 BBSP라는 소규모 비즈니스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교육으로 소액을 가지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현장 실습에 적용해보면서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주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기수마다 20명을 훈련하고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이번에 수료생들이 운영하는 가게 두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2기 수료생인 우마르 씨의 가게였습니다. 아담한 가게 내부를 들어서니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우마르 씨가 보입니다. 가게는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지만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열대 한 칸 정도를 갖고 시작했고 물건도 거의 없었는데 BBSP를 마친 이후 현재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물건도 다양해졌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진열하는 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변화를 시도한 결과 가게가 현재의 모습으로 커졌고, 수익으로 농업에 투자해 약 200만 세파(원화로 약 400만원)의 추가 수입도 얻었다고 합니다. BBSP 수료증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는 이 수료증이 일종의 보증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지난 교육에 이어 상급 과정이 신설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만난다면 멋진 사장님으로 변모한 우마르 씨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방문한 곳은 아스난(가명)의 가게였습니다. 아스난에게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아스난은 AVEC의 스텝으로서 주목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의 결정으로 갑자기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에게 심각한 폭력과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 BBSP를 이수하고 센터에서 봉사하면서



친구와 함께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옷과 잡화, 축구 유니폼 등을 파는데 월드컵 특수 덕분에 수입이 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스난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예쁜 슬리퍼 2켤레를 사 왔습니다. 슬리퍼를 볼 때마다 수줍게 웃던 아스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녀가 지금보다 더 멋지게 훨훨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자랐어요~**

마을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가꾸는 공동텃밭이 있습니다. 작년 우기 때 강수량이 많아 텃밭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공사했던 담장도 한쪽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히 담장은 보수를 마쳤고, 부녀자들도 심고 가꾸었던 농작물을 모두 잃게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농사로 첫 열매인 가지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텃밭에 참여했던 10명의 성과는 저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단 하나도 수확을 얻지 못했는가 하면 어떤 여성은 큼지막한 가지들을 몇 통이나 수확하며 판매에 성공한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녀자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기는 건기였는데 건기에는 텃밭을 가꾸기 위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밭 곳곳에 물 저장고가 있지만, 자신들의 텃밭까지 양동이에 물을 담아 밭에 뿌리는 일은 쉽지 않은 고된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매일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 마차 타고 오다가

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이 지역의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프렌즈와 협력하고 있는 김이빛 활동가가 둘째 꼬이를 세네갈에서 출산하고 플라 종족이 사는 이 마을로 들어와 살면서 마을 여성들과 아이들의 실제적 어려움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율은 높은 곳이지만, 이와 관련된 의료 시설과 의료적 접근이 너무나 열악한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자보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늘 가슴에 품고 있다가 프렌즈와 함께 코이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기관의 통합적 역량 강화와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는 크게 3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현지 보건소의 모자보건 진단 역량을 강화하는 것, 둘째, 마을 보건활동가의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것, 셋째,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 속에서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조산사를 비롯하여 바쟁고, 를레, 마트롱, ASC같이 비전문 보건인력으로 임신과 출산, 예방 교육 등 모자보건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임신부와 출산 경험이 있는 가임기 여성, 배우자와 가족도 만났습니다. 중앙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 지역 내 여러 의료시설을 방문해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인력과 시설, 기자재 현황도 파악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세네갈 코이카 사무소를 비롯해 세네갈에서 이뤄지는 코이카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칠레부바카르 시청과 보건국, 동사무소 등 주요 공무원과 담당자들과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칠레부바카르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내지 마을에 위치한 '세노보알 보건분소'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지인 코디네이터조차 또 다른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야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내지마을에서 임신부나 산모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분소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다



행이지만, 상급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면 전원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마차'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기에 내지 마을은 고립되기 쉽고 외부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다 보니 얼마 전에도 응급 상황으로 마차를 타고 이동하던 산모가 마을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산모와 아이가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중앙 보건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인데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하마탄이나 50도가 넘는 무더위를 고려한다고 해도 도저히 아기를 분만할 환경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실조차 없어서 일반 환자와 함께 분만을 기다려야 하고, 분만 과정의 고통을 고스란히 대기 산모가 함께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매트리스와 시트조차 제대로 없어서 낡은 대로 낡아 언제 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기서 아기를 낳게 될 산모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로 몇 군데 안타까운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황을 보았던 세비아학교(구 왕가의 아이들)원장님께서 세네갈 아기들과 엄마를 돕는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준비한 바자회를 통해 세네갈 모자보건사업의 첫 후원이 이뤄졌습니다. 매트리스 8개와 시트 60개가 후원된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매트리스와 시트를 후원받고 교체하자마자 결연아동의 어머니께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깨끗한 환경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어서 의료진도, 아기 엄마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지역의 필요에 비해서 이 후원은 너무나 작은 후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의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발 한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섬기게 될 날도 오리라 기대하며 말입니다.

칠레부바카르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전기가 없기에 별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어쩌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좋은 판단일까 고민할 때 현지 책임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와 시트들



AVEC 현지 책임자와 함께

“결핍, 그것이 바로 저희가 이곳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많은 국제기구와 NGO들이 이곳을 지나쳐 어디론가 달려갈 때,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찾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이 AVEC였고, 프렌즈였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AVEC와 프렌즈가 함께한 만 3년여 시간 동안 이곳의 아이들은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어머니들도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장애로 인해 무기력했던 아버지는 가장으로 어깨를 펴기 시작하고, 일거리가 없던 청년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마주하는 가장 경이롭고 행복한 시간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칠레부바카르를 기억해 주세요. 변화와 성장의 기쁨이 있는 이곳은 칠레부바카르, 어두운 밤 더 밝게 빛나는 별처럼, 어둠을 뚫고 더 찬란하게 빛날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 라오스에 울려 퍼진 '가나다'와 '도레미'



2024년 6월 7일, 프렌즈의 봉사단원 2명이 라오스 프안밋 학교로 파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한국어와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두 명의 봉사단원이 프안밋 학교에서 만들어 갈 변화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 KOICA WFK NGO 봉사단? 그게 뭔데?

WFK(World Friends Korea)는 우리나라 정부 파견 해외 봉사단을 지칭하는 통합 브랜드입니다. WFK KOICA 봉사단, WFK 청년봉사단, WFK 태권도 봉사단 등 지금까지 전 세계 142개국에 8만 2천여 명의 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sup>1</sup> 그 중 'KOICA WFK NGO 봉사단(이하 NGO 봉사단)'은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협력국과의 협력 증진, 봉사자 자아실현 등을 목표로, 국내 NGO와 협력하여 매년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NGO 봉사단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국제개발 일선에서 활동하는 NGO 사업장에 파견되는 만큼 현지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개발 협력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한눈에 읽는 2021년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KOICA, 2022.



## 우리 단원이 되어주세요! - 파견과정

### 1 선발 및 KCOC 사전 공통 교육

NGO 단원은 서류심사와 면접, 건강검진의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최종 선발된 단원은 봉사단원이자,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해 봉사단원 정체성 확립,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 건강 및 안전관리, 네트워킹, 활동 지원 등 5개 분야, 27개 과목으로 총 51시간의 사전공통교육을 받으며, 합숙교육도 있어 다른 단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위해 A형 간염, 장티푸스, 파상풍, 황열 등 대륙별 필수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 2 파견 단체 교육

사전공통교육 후에는 파견 단체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며, 현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 달간 원격으로 봉사활동도 하게 됩니다. 프렌즈와 처음 만난 단원들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프렌즈와 직원들, 활동하게 될 현지 사업장, 담당하게 될 역할들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프렌즈'라는 옷에 적응하고 차근차근 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3 파견 활동 및 귀국

모든 준비를 마친 NGO 봉사단원은 각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11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파견 직후에는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위해 현지 언어와 문화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원한다면, 비용도 지원받아 현지인 교사에게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11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단원에게는 원활한 국내 적응을 위해 '국내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고, '귀국 단원 장학제도'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으며, 취업지원센터, OPIc 응시로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겠죠?



### ▶ 더 알아보기

NGO 봉사단 파견절차 및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COC 홈페이지 ([www.ngokcoc.or.kr](http://www.ngokcoc.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활동가와 함께하는 라오스 현장 교육

라오스 프안밋 학교에 잘 도착했습니다.

## 김억대 단원

안녕하세요, 저는 프안밋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된 김억대 단원입니다. 이제 조금 현지에 적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날씨와 벌레들, 언어, 음식, 현지 사람들과의 문화 차이 등 모든 것이 낯설어서 마치 군대 시절 이등병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 저녁밥도 지어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식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작·편곡이나 노래하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NGO 봉사단을 알게 되었고요, 라오스, 음악 선생님, NGO라는 낯선 키워드들이 많이 고민됐지만, 용기를 내어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예체능 교사를 비롯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부족한 곳이지만, 학생들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로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구상했습니다. 지금은 썸머스쿨에서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9월 정규학기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든 학생에게 음악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사실,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앞으로 라오어를 열심히 배워서 유창하게 말도 할 줄 알고, 아이들에게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선생님이로, 이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기쁨과 활력소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비록 제 코가 석자라 쉽지 않지만 말이지요^^. 무엇보다 11개월의 기간 동안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선생님 과 친구들의 마음도 서로 위로하며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렌즈 NGO 봉사단

프렌즈에서는 첫 번째 NGO봉사단으로 선발된 김억대, 최은서 단원이 라오스 프안밋 학교로 파견되었습니다. 프안밋 학교는 프렌즈의 주요 사업장 중 하나로, 2017년 개교한 이후 교육 전문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며 우뚝사이의 명문 학교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한국어와 음악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배울 수 없어 아쉬워했던 학생들이 드디어! 김억대 음악 선생님, 최은서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라오스에 도착해 프안밋 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적응하고 있는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 최은서 단원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아짤 밀리'라고 불리고 있는 최은서 단원입니다. '아짤'이 선생님, '밀리'가 제 이름이에요 ^^

저는 대학생 때부터 NGO봉사단을 꼭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중국 연변 비전트립과 캄보디아 단기 봉사를 통해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 전공과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국제개발 관련 강의로도 찾아 들었어요. 대학 졸업 후, 1년간 입시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즈음, 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았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프안밋 학교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가족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라 좋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라오스의 더위도 힘들고 언어도 모르는데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쌓여 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새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느끼며, 이곳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학생들과 얼굴도 익히고 집이랑도 친해져서 정착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이곳 생활이 너무 좋아서 단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프안밋 학교가 정말 예뻐거든요. 어디를 둘러보든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3층 벨라터에서 바라보는 우리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커피 한잔하며 책을 읽는 것이 이번 주말 저의 목표랍니다!

여기서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프안밋 학교는 한국인 선생님이 세운 학교라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요. 고학년 아이들은 한국어로 먼저 인사도 해줍니다. 토픽(TOPIK : 한국어 능력 시험) 특별반 학생들은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 열의가 정말 높습니다. 과제를 많이 내달라는 학생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사실, 한국어는 졸업 필수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태도를 통해 학생들이 예절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아이들이 처한 마음 아픈 현실을 보며, '이 아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아이들에게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 기억되고 싶어요. '저 선생님은 내가 한국어를 못해도 수업에서 날 배제하지 않았어.', '나를 혼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1개월 후에는 라오어도 더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신뢰할 만한 선생님이 되어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토픽 특별반 아이들이 적어도 토픽 3급을 꼭 딸 수 있게 해서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똑똑한 학생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아프지 않겠다는 목표도 잘 달성하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관.부!

김억대, 최은서 단원은 앞으로 11개월 동안 라오스 프안밋 학교에서 각각 음악 교사와 한국어 교사로서, 학생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두 단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NGO 봉사단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꿈들이 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콘체르타레의 절정, 2024 프렌즈데이

우리에게 익숙한 '콘서트'는 조화와 일치, 협력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이탈리아어 '콘체르타레(concertar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휘자 손짓 하나에 개성 넘치는 악기 소리가 하나의 곡으로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콘서트는 최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마치 수천 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청중의 삶을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2024 프렌즈데이는 많은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학교 건축을 지원하고 현지 활동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아름다운 콘체르타레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던 2024 프렌즈데이의 악장들을 하나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시된 사진들



### 1악장 : '차드의 빛' 노우승 작가 사진전

프렌즈데이의 첫 포문을 연 것은 'Lumière du Tchad(차드의 빛)'이란 제목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노우승(몽실스튜디오 대표) 작가 사진전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후원 사진전을 개최했고, 그것을 계기로 프렌즈와 '차드'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차드를 처음 방문한 노 작가는 차드에 대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황량하고 척박한 나라, 영유아 사망률이 세계 5위일 정도로 매우 열악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희망과 빛'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하나임 학교 학생들의 밝고 아름다운 '미소' 였습니다. "분명 어둡고 열악한 현실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 특히 그 아이들을 섬기는 활동가들의 사랑이 담긴 시선은 정말 잊지 못할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분들의 '진심'을 사진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후, 프렌즈데이 후원캠페인 취지에 깊이 공감한 노 작가는 프렌즈와 함께 다시 한번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담았던 수백 장의 사진 중에 고심하여 선별한 13점을 오륜비전센터 1층 복도에 전시했고, 공간의 제약으로 보여줄 수 없었던 몇 장의 사진은 영상으로 제작해 LED 스크린으로 더욱 생생하게 전시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분들이 전시 작품을 관심 있게 봐주셨고, 프렌즈데이 당일에 전시된 작품 액자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로 이어



졌습니다. 그리고 차드의 다양한 사진을 담은 엽서, 스티커, 포스터로 구성된 굿즈 세트도 좋은 호응을 얻었고, 이렇게 판매한 굿즈 수익금을 차드 벳바나 학교 건축비로 후원하여 더욱 의미 있는 사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사진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차드 아이들의 빛나는 미소가 오히려 우리에게 밝은 희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 더 이상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 아닌, 힘차게 박동하는 심장을 가진 차드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함께 고생한 노우승 작가님과, 굿즈와 영상제작으로 함께 해주신 음선아, 음선우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약장 : 차드 이야기가 흐르는 토크콘서트**

프렌즈데이 본행사 전날인 6월 1일 오후 5시, 이번 후원캠페인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준 '차드 이야기가 흐르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오륜비전센터 6층 토비아스 카페에서 진행된 만큼, 이곳에 오신 분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며 맛있는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차 한잔과 간식을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속에 기쁨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자리는 꼭 차 의자들을 추가로 세팅해야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했

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고, 드디어 토크콘서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내빈들의 격려 인사를 시작으로 김혜정 차드 활동가가 직접 제작한 영상 상영이 있었습니다. 차드의 활동 모습과 그간 차드를 위해 응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 담긴 영상은 곳곳에서 청중들이 눈시울을 적실만큼,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정민 사무국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렌즈 차드 사업장의 책임자이자 마하나임 학교 이사장인 김혜정 활동가, 차드팀의 리더이자 대표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는 양승훈 활동가, 사진전으로 함께한 노우승 사진작가, 차드에서 한 달간 치과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전영신 치과 의사, 단기봉사단을 이끌고 어린이 교육 등 다이나믹한 활동을 진행한 최계자 팀장 이렇게 총 5명의 패널들이 차드에서 겪었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함께 활동하며 느낀 소회와 고민, 여러 생각들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즉석에서 진행된 OX퀴즈 순서는 패널들과 청중들이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패널분들의 센스와 유머러스함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와 패널만 서로 질의 응답하는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닌, 청중들도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차드를 향한 열정과 헌신된 마음이 패널들의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전달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70여 명의 청중이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패널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청중들의 얼굴에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려한 프로그램을 갖춘 행사보다도, 더 값지고 알찬 시간으로 꼭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차드 이야기가 흐르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감동의 여운을 안고 차드를 응원하고 더욱 마음으로 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3약장 : 클라이막스, 프렌즈데이의 현장**

프렌즈데이의 클라이막스! 본 행사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스를 방문하실 많은 분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방문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한쪽은 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부스로, 맞은편에는 차드 사진전 굿즈와 핸드온봉사활동 부스로 배치했습니다.

부스 세팅이 끝나자마자, 핸드온 우드 장난감을 보고 세명의 꼬마 숙녀들이 아빠의 손을 이끌고 방문했습니다. 우드 장난감을 꼭 만들고 싶다는 아이들 성화에,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완성도가 낮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물으시며, 매우 난감한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이거 정말 잘 만들 수 있겠어?"라고 묻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 모두 복도가 쩌렁 울리도록 "네!!!" 단번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간절함에 아버지는 아이들의 당찬 도전을 허락해주셨고, 그렇게 부스에서의 첫 후원이 귀여운 손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핸즈온과 사진전 굿즈 부스





이번 프렌즈데이를 위해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결연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의 간단한 정보와 사진을 담은 현수막이었습니다. 후원자님이 후원하게 될 아동을 먼저 볼 수 있다면, 더 마음을 품고 이 첫 만남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사진 앞에 서서 한번씩 관심 어린 시선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본인이 결연한 아동에 매칭 완료 스티커를 붙이시며 즐거워하시는 분들까지 아동결연 부스가 행복한 만남으로 복적복적 해졌습니다. 올해 2월 새롭게 이사장으로 섬기게 되신 주경훈 이사장님께서도 부스를 찾아 격려해주셨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총 136명의 아동이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아동 결연 뿐 아니라 프렌즈의 다양한 사업을 위한 정기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차드 벳바나 학교 건축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 사진전 굿즈를 적극적으로 구입해 주시고 마음 가득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프렌즈데이는 정말 따뜻한 후원 캠페인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행사 부스를 찾아 격려하고 있는 주경훈 이사장

5월 29일, '차드의 빛' 사진전을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진행된 프렌즈데이의 준비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영혼, 한 아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나눠주시는 손길이 함께 모여, 결국 아름다운 '콘체르타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모니가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반짝반짝 꿈을 펼치게 하여 아이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우리에게 감동의 연주로 들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내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에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요

## 해피빈,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함께 한 정서 및 진로지원사업을 마치며

프렌즈에서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에 건강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한 해피빈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긴 시간이 흘렀고, 관심이 줄어들어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해피빈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포스코 1% 나눔재단의 1% 마리채 지정 후원으로 모금 목표액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전문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2월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아, 3월부터 본격적인 검사로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처음 계획보다 많은 21가정, 59명의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난민 가정을 위한 정서적 지원과 진로 지원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에 참여한 엄마와 아이들



###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참가자들의 정서, 진로, 학습 스타일, 스트레스 요인 및 해소 방법들을 파악하기 위해 HTP 검사, 성격유형검사, 행동유형검사, 진로검사, 관계성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 전문가들과 통역 봉사자들이 모든 검사지를 번역하고, 상담 시 통역을 지원해주는 등 최대한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 행복한 코칭의 시작

모든 검사의 결과를 분석한 후, 코칭 계획을 세워 4월부터 일대일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코치들이 참여자 1명당 1~3회에 걸쳐 개별 코칭을 했는데, 대부분 전쟁을 겪은 트라우마, 이주민으로서 만난 낯선 문화와 언어,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소외와 불안함으로 내면에 분노, 짜증, 우울 등 부정적 요인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거운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높았습니다.

1 전쟁에 동의하지 않고 참전하지 않은 러시아 국민 중에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러시아나 구소련 독립국가(CIS) 출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 중 일부 인원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내 마음 속 진짜 나를 만나요

부모와 아이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코칭과 그룹 활동 시간을 통해 먼저 자신의 마음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에는 생각, 감정, 욕구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 진짜 나를 만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천사 점토와 감정 게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꼭꼭 숨겨두었던 부정적인 감정도 꺼내 보고, 긍정적인 감정도 마음껏 표현하면서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꿈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다

초기에는 진로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매우 낮설어하고, 집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와 스베타타는 디자이너와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여러 가지 도전해보면서 작은 성취들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여 용기가 되고, 이 용기가 희망을 이루는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려서 앓은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자녀와 자폐증으로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사 같은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칭찬할 점을 적는 미션을 수행하던 부모님들이 그 내용을 써 내려가면서, 눈과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가도 때때로 눈시울이 촉촉해짐을 보며 함께 마음이 뭉클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1일 가족 캠프로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오전에는 회복탄력성 그

룹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맺음을 갖고, 오후에는 안성팜랜드로 자리를 옮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시간을 가지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 '함께'라는 또 다른 선물

가까이 있으면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가까이에 있어도 서로를 더 모르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며 도전할 시기를 빼앗겨 버린 난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찾아주고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고픈 가족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어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섬세하고 꼼꼼하게 사전준비를 해준 전문가그룹과 코치들, 러시아어 감수와 통역으로 협력해주신 봉사자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해피빈 후원자와 포스코 임직원분들이 있었기에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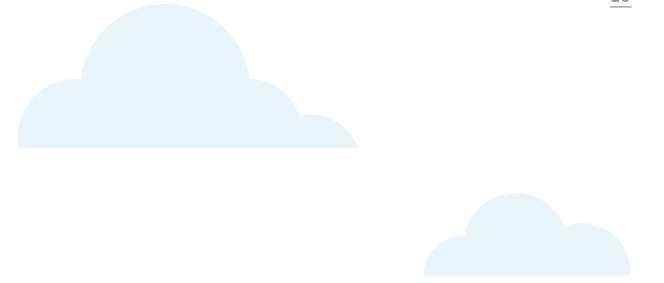
아직은 전쟁과 포화가 가득한 땅이지만, 평화가 찾아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들이 상처 입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건강한 이웃이자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빵빵런과 함께 맛있는 나눔을!

### (주)1986프로덕션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빵빵런으로 강동구 내 여러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무국적, 미등록 아동 등 국내 다양한 아동들에게 후원하고 있는 1986프로덕션의 윤명호 대표님과 함께 '맛있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명호 대표님~

먼저 프렌즈 후원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86프로덕션 대표 윤명호입니다. '짠'이란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입니다. 프렌즈와 벌써 3년이 되었다니 놀랍네요!

**(주)1986프로덕션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해드릴 수 있으실까요?**

“삶은 재미”란 모토 안에서 재미있고 행복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1986프로덕션이 만든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는 국내 유일의 반려견 동반 마라톤 '댕댕런', 산을 통째로 빌려 숲길을 걷는 '댕댕트레킹' 그리고 빵을 먹기 위해 달리는 '빵빵런' 등이 있습니다.

**많은 행사 중에서도 빵빵런과 댕댕런은 좀 더 특별하면서도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행사들을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할 때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것들을 관찰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행위가 아닌 오래전부터 사람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1일 1빵'을 하던 사람으로 20대부터 '빵'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페스티벌보다는 마라톤 형태가 잘 어울리겠다 싶었죠. 빵빵런의 완주 메달은 동기를 부여하여 승부욕을 자극하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질감을 고취시킬 거라고 예상했죠. 그렇게 빵빵런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반려견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함께해온 동물이잖아요. 늘 주인만 바라보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반려견과 함께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거울까 고민했고, 함께 걷고 뛰는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댕댕런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에게 전달된 빵빵런 간식들



강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제식빵 전달식

앞서 소개했듯이 프렌즈와 함께 국내 다양한 아동들에게 맛있는 간식들을 3년째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나눔을 결정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프렌즈를 알게 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렌즈는 오륜교회라는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장인어른 모두 오륜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도 아내를 만나 함께 오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프렌즈를 알게 되었답니다. 아! 지금은 이사하면서 다른 교회로 출석하고 있어요.

나눔을 결정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빵빵런의 메인 캠페인은 참가자 1인당 1개의 빵을 아동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는데, 아이들도 함께 이 빵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그런 마음에 참가자들도 모두 공감해 주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포켓몬스터 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이들이 정말 빵빵런의 간식을 기대하며 기다릴 정도로 맛있는 선물이었어요. 빵빵런과 함께하고 있는 후원 기업들도 다양하고, 또 꾸준히 함께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히 도제식빵(주)울투달리서스에서 아이들을 위해 식빵 1,500개를 후원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꾸준히 이 행사에 참여하는 매력, 혹은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기업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타겟과 빵빵런 참여 연령층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빵빵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마라토너가 아닌 대부분 트렌드를 앞서가는 MZ세대입니다. 마라톤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또는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초보 마라토너들이 많아요. 많은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기부하고 싶은 니즈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윤 추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영리 기업의 특성 때문에 이유 없는 기부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빵빵런과 함께 하면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기부활동으로 노출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홍보로 이어져 다양한 기업들이 꾸준히 빵빵런과 함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1986프로덕션 제공

이렇게 맛있는 나눔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아이들이 빵 가방을 들고 행복해하는 사진들을 볼 때,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닿을 수 없지만 프렌즈를 통해 다양한 단체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달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빵빵런으로 함께 소통했던 (주)1986프로덕션 매니저 분들이 하나같이 모두 밝고 친절하시더라고요! 대표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로와 칭찬의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저희는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누군가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즐겁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사람, 동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 1986프로덕션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986프로덕션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1986프로덕션의 본질은 ‘기획’입니다. 정량적인 수치보다는 정성적으로 기획력 부분에서 국내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기획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너무 기대되는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후원에 대해 주저하거나, 후원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986프로덕션에서 기획하는 모든 콘텐츠에는 ‘기부 캠페인’이 꼭 들어갑니다. ‘빵빵런’을 통해서도 참가자 1인당 1개의 빵을 기부하고, ‘땀땀’ 참가자들은 1인당 사료 1kg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죠.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기획입니다. 그 기획을 통해 함께 나누는 것을 실천할 뿐이죠. 막연할 수 있는 ‘기부’, ‘후원’이라는 단어를 저의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1986프로덕션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기부나 후원을 연결해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고민해보시면 뜻밖에 새롭고 재밌는 후원 방법을 찾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윤명호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9월 대전에서 개최될 ‘빵빵런2024 in 대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4 프렌즈 상반기 News



## (주)엠제이샤인 해외사업장 의류 후원

(주)엠제이샤인(대표 김양문)에서 300점이 넘는 브랜드 아동복을 후원 해주셨습니다. 두툼하고 따뜻한 패딩부터 하늘하늘 예쁜 여름 원피스까지 다양한 의류를 보내주셔서 라오스, 인도네시아, 차드, 페루 등의 프렌즈 해외 사업장을 비롯한 협력 사업장의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지대인 페루 쿠스코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기온 변화가 크고 추운 시기가 많아 두툼한 옷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후원받은 의류들로 따뜻한 마음과 온기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들의 4계절을 사랑으로 옷입혀 주신 엠제이샤인에 감사드립니다.



## 이종임 요리연구가 샌드위치 간식 기부

요리연구가 이종임(수도홀딩스 대표)님이 양질의 샌드위치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후원해주셨습니다. 1회당 50인분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강동구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비롯해 무국적, 미등록 아동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다양한 이웃을 위한 맛있고 특별한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상반기 활동은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안전한 나눔을 위해 음식이 쉽게 상하는 7~8월은 잠시 휴식을 갖고, 9월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갖가지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 어린 손길과 마음을 나눠주신 이종임 봉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 현금, 프안맛학교 태풍 피해 긴급 지원

3월 22일 라오스 우돔사이예 예보도 없이 허리케인처럼 큰 돌풍과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돌풍은 곳곳에 큰 피해를 주었는데 프안맛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돌풍과 함께 큰 비와 낙뢰가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바람에 물과 전기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학생 기숙사 지붕과 유치원, 중등학교 건물 지붕이 거의 다 날아가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업 중이었음에도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 아무런 인명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감사했지만, 지역 전체가 피해를 입은 터라 일부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높아 애태우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사랑의현금'에서 긴급 구호기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이 기금으로 가장 보수가 시급했던 학생 기숙사 지붕 공사를 마쳤고 현재는 유치원 지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치원 보수가 끝나는 대로 중등학교 공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속한 지원으로 프안맛학교의 복구에 큰 힘이 되어주신 '사랑의현금 운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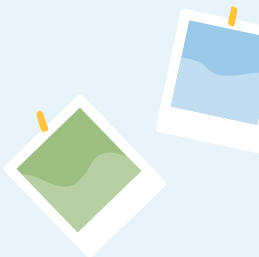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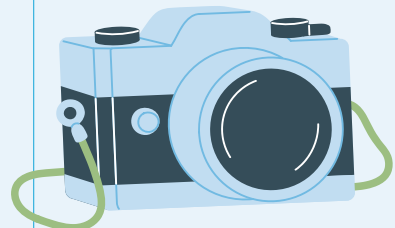


## KCOC 역량강화 컨설팅

상반기 동안 프렌즈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2024 KOICA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사업, 조직운영, 조직문화 등의 분야별 전문가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방안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렌즈는 비영리 인사 및 노무, 디지털 활용 교육, 현지 파트너 발굴, 모금전략 및 후원 마케팅 등의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후 추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조직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후원자들과 파트너기관에게는 이전보다 더 신뢰와 사랑을 받고, 현지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해외봉사단을 위한 프렌즈 핸드온 물품 배분

많은 봉사자분들의 손길로 탄생한 핸드온 완성품들이 프렌즈 의료봉사단을 비롯해 협력하고 있는 해외 봉사단에 배분되었습니다. 이번에 배분된 핸드온 완성품은 펠트 필통 1,420개, 컬러링 에코백과 필통 118개, DHL KOREA와 바이오메리외 임직원분들이 완성한 컬러링 티셔츠 60개이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후원한 DHL KOREA의 기금으로는 책가방과 학용품도 구입할 수 있어서 더욱 풍성한 나눔이 되었습니다. 페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곳곳에 전달된 핸드온 완성품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사단법인 프렌즈**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 신한은행 100-023-015009

후원자님의 주소,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프렌즈에 꼭 알려주세요!

